

〈기획 논문 - 접경의 인문학 : 조우와 충돌〉

# 국경(Grenze)에서 접경(Kontaktzone)으로 - 20세기 독일의 동부국경 연구\*

차용구\*\*

목차

- I. 서론
- II. 무기가 된 국경연구
  - 1. 원시 게르만론
  - 2. 문화전파론
  - 3. 슬라브 절멸론
- III. 접경연구
  - 1. Germania Slavica
  - 2. 접경의 일상
- IV. 새로운 공간담론
  - 1. 탈국가적 접경연구
  - 2. 종족 형성론
- V. 결론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I. 서론

1990년 독일의 재통일과 함께 오데르-나이세 국경선(Oder-Neisse-Line)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부국경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독일과 폴란드 양국의 정상화에 걸림돌이었던 국경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로써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천년전사(千年戰史)’의 원인이었던 국경분쟁을 종식시키고 역사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었다.<sup>1)</sup> 하지만 ‘피 흘리는 국경선(blutende Grenze)’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19세기와 20세기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역사전쟁을 거치면서 깊은 상흔을 군데군데 남겨 놓았다.

양국의 영토와 국경분쟁은 18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강대국의 폴란드 강제 분할(1772, 1792, 1795), 프로이센에 의한 폴란드 점령지의 급속한 게르만화가 진행되자 폴란드 독립을 위한 저항과 민족주의의 열풍은 봉기로 표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독립하고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강제명령에 근거해 독일 동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새 폴란드’에 내줘야 하면서 양국의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경갈등으로 비화된 대립국면은 패전국 독일에서 실지수복과 국경회복의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주권(historical sovereignty) 되찾기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학문은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무기로 쓰였다.<sup>2)</sup>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이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이 지역에 살던 수백만 명의 독일인 강제이주가 결정되면서 국경선 문제는

---

1) 한운석·김용덕·차용구·김승렬,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서.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2008.

2) Jerzy Lukowski, *The Partitions of Poland, 1772, 1793, 1795, 1999*; Norman Davies,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Vol.2: 1795 to the Present*, 2005, pp.60-119; 정병권, 『폴란드사』, 대한교과서, 1997, 161-177쪽; 김용덕, 『이야기 폴란드사』, HUEBooks, 2013, 290-315쪽 참조.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동독 정부는 소련의 압력으로 국경선을 인정하고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시도했던 반면에, 서독 정부는 이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변화의 첫 물꼬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이 추진한 ‘신’동방정책(Ostpolitik)의 ‘화해 정치’에서 트였다. 국경선을 인정하고 현존 국경의 불가침을 확인하는 1970년의 바르샤바조약으로 서독과 폴란드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동서유럽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고,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오데르-나이세/오드라-니사(Oder-Neiße/Odra-Nysa) 국경선은 통일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으로 재천명된다.<sup>3)</sup>

1970년대 동서 데탕트와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일 학계에서도 국경지역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엘베(Elbe)에서 오데르-나이세 강에 이르는 지역은 “슬라브인의 심장(Herz des Slavenlandes)”<sup>4)</sup>으로 불리던 곳으로 오래 전부터 슬라브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나, 엘베 강 동쪽 지역부터 진행된 중세의 개간 사업으로 독일의 영토에 편입된다. 기존의 국경지역 연구는 전쟁, 정복, 선교, 문명화, 이주, 정착과 같은 논의와 함께 국가 팽창론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중세에 진행된 독일 동부로의 팽창 과정을 19세기 독일 역사가들은 ‘동유럽 식민지화(Ostkolonization)’로 명명했고 바이마르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함페(Karl Hampe)는 동방 진출(Zug nach Osten)을 ‘중세 독일 민

---

3) 이용일,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10-39쪽.

4) Christian Lübke,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Religiöse Divergenz in ethno-kulturellen Grenz- und Kontaktzonen des mittelalterlichen Osteuropa(8.-16. Jahrhundert)”, *Grenzräume und Grenzüberschreitungen im Vergleich Der Osten und der Westen des mittelalterlichen Lateineuropa*, 2007, pp.175-190 여기서서, p.179.

족의 위대한 식민 사업'으로 칭송했다.<sup>5)</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법제 사학자 쉘레징어(Walter Schlesinger)는 이를 처음에는 “동유럽 이동(Ostbewegung)”, 1972년에 와서는 “동유럽 이주(Ostsiedlung)”로 새롭게 정의하였고<sup>6)</sup>, 최근 학계는 “영토 개간(Landesbau)”으로 기술한다.<sup>7)</sup>

시간에 따라 국경 형성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현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세 전성기부터 개간된 엘베에서 오데르-나이세 강에 이르는 영토는 후대에 대부분 구동독 지역이지만 이중 일부(Schlesien, Pommern)는 2차 대전 이후 폴란드에 귀속된 곳이다. 19세기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 2세기에 걸친 역사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국경지대가 바로 이곳으로, 중세부터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지역의 이주자들이 여러 슬라브족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된 국경지역(Grenzraum)이기도 하였다. 최근의 국경연구는 다양한 이질적인 문명 간의 조우와 충돌, 동화와 융합, 새로운 종족 정체성의 형성 등에 주목하면서 과거 단절과 대립의 장소였던 국경지역을 변화와 역동의 ‘접점공간(Kontaktzone)’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sup>8)</sup>

---

5) Karl Hampe, *Der Zug nach dem Osten. Die kolonialisatorische Großtat des deutschen Volkes im Mittelalter*, 1921.

6) Walter Schlesinger, “Die geschichtliche Stellung der 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bewegung”, *Historische Zeitschrift* 183, 1957, pp.517-542; Walter Schlesinger, “Zur Problematik der Erforschung der deutschen Ostsiedlung”, *Die deutsche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als Problem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1975, pp.11-30.

7) Christian Lübke, “Ostkolonisation, Ostsiedlung, Landesausbau im Mittelalter. Der ethnische und strukturelle Wandel östlich von Saale und Elbe im Blick der Neuzeit”, *Ostsiedlung und Landesausbau in Sachsen. Die Kührener Urkunde von 1154 und ihr historisches Umfeld*, 2008, pp.467-484. 중세의 독일 측 사료도 ‘토지 개간(edificatio terrae)’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관련해서는 Lübke,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p.181.

8) 서양 중세의 접경연구와 관련해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대표적으로 Dieter Berg, *Deutschland und seine Nachbarn 1200-1500*, 1997; Outi Merisalo (ed.), *Frontiers in*

## II. 무기가 된 국경연구

19세기 중반부터 프로이센에 귀속된 영토에 대해 폴란드 측이 영토주권에 관심을 보이자<sup>9)</sup>, 독일-프로이센의 학자들은 엘베 강과 오테르-나이세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 측의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역사전쟁이 시작된 것이다.<sup>10)</sup>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과 담론은 기존 국경연구의 국가중심적 사고와 분석틀을 잘 드러낸다. 먼저 논란이 된 주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원시 게르만론

폴란드가 독일 동부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자 프로이센의 역사가들은 폴란드의 강제분할 이전부터 이 지역이 자국의 영토였다는 이론적 근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곳은 독일인의 조상인 동게르만인이 원소유자였던 ‘영원한 고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게르만 민족 이동(Völkerwanderung)’ 전부터 게르만인들이 거주했던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직계후손인 독일인들에 의해서 재탈환되었다는 ‘원시 게르만론(Urgermanentheorie)’이 제기된다. 폴란드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동부 국

---

*the Middle Ages*, 2006; Klaus Herbers (ed.), *Grenzräume und Grenzüberschreitungen im Vergleich*(위의 각주 4 참조).

- 9) 폴란드의 학자들은 포메른과 슐레지엔을 ‘조국의 요람’, 독일 측의 국경수정 압력을 ‘독일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고방, 2011, 313-350쪽, 여기서는 325-329쪽; 차용구, 『탐넨베르크/그룬발트 전투(1410)-기억과 땅각의 이중주』, 『사충』 92, 역사연구소, 2017, 275-311쪽, 특히 280-282쪽.
- 10) 동부 국경지역을 둘러싼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논쟁에 대해서는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 접경지역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2007, 317-348쪽.

경 지역에 대한 시원적 권원이 독일에 있다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게르만 민족 이동 이후에 슬라브-폴란드인들이 유입되었던 이곳을 “독일인들이 재이주(Rückwanderung der Deutschen)”하면서 발전된 독일 문화가 다시금 이식될 수 있었고, 10, 11세기의 식민지화(Kolonisation)에 공헌한 “영웅시대(Heldenzeitalter)”를 거쳐 12, 13세기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독일 민족의 문화적 위업을 달성(Erfüllung deutschen Kulturwillens)”하게 되었다.<sup>11)</sup> ‘재이주’, ‘재탈환’, ‘재독일화’와 같은 기본 개념들은 국경선 투쟁(Grenzkampf)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자양분을 제공했다.

역사적 근거가 박약한 이러한 허구적 주장은 나치 독일의 동방팽창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되었고,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의 역사적 근거도 ‘독일인의 고유한 영토’ 탈환과 ‘독일 동부 지역의 수복’이었다. 이러한 역사주권론은 제1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독일이 폴란드에 넘겨주어야 했던 고유한 영토를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용 억지논리였다.<sup>12)</sup> 동게르만이 독일인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엘베 강 동부 지역이 본래부터 독일의 영토라는 원시게르만론도 부정되기 시작했다.

## 2. 문화전과론

동유럽에 대한 독일적 오리엔탈리즘은 슬라브인들의 정치적 무능함과 낮은 경제적 수준을 부각시킨다. 문화적으로도 초보적인 수준인 이 문화부재의 공간은 서유럽 선진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국경이론은 이처럼 자문화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국경에서 타문화와

11) Heinrich Ehl, *Norddeutsche Feldsteinkirchen*, 1926, p.5.

12)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34-335쪽.

의 교류적 측면을 등한시 하면서 슬라브 원주민 문화를 철저하게 타자화 하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동방이주에 대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역사 서술은 동부 유럽을 개화시킨 독일의 ‘문명화 사업’이 갖는 문화적 업적 부각시키고 이를 독일의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구 슬라브 영토가 독일 공동체에 귀속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국경팽창론은 동방이주 이전 슬라브 문화의 후진성을 전제로 하며, 특히 씨토 수도회의 개간과 도시 건설 활동에 대한 연구는 서유럽 그리스도교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수도사들과 이들과 함께 온 개척자들은 낙후된 슬라브의 불모지(terras desertas)에 문명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무능력한 슬라브인”, 특히 “가난하고 게으른 폴란드인”이 거주하던 지역은 씨토 수도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간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되었다.<sup>13)</sup> 이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영토에 대한 무주지(terra nullius) 선점의 논리를 통해서 역사주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가 부재했던 ‘임자 없는 황무지’ 슬라브 거주지에 대한 문화민족(Kulturnation) 게르만인의 정복이라는 이분법적 문화우월주의가 갖는 허구성은 1970년대부터 드러났으며<sup>14)</sup>, 이는 주권의 부재를 내세워 군사점령을 합리화하려는 논리에 불과했다. 19세기와 20세기 유럽 제국주의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한 무주지론은 제국주의의 이념적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토지를 발견하고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 주장은 국경을 문명과 야만의 단층선(Fault Line)으로 보는 문명 충돌론적 관점의 연속선 상에 있다.

---

13) Winfried Schich, “Zur Rolle des Handels in der Wirtschaft der Zisterzienserklöster im nordöstlichen Mitteleuropa in der zweiten Hälfte des 12. und der ersten Hälfte des 13. Jahrhunderts”, *Zisterzienser-Studien* 4, 1979, p.134.

14) 한운석 외,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서』, 223쪽 이하.

문화전파론(Kulturträgertheorie)에 의하면 독일의 문화가 슬라브에 대해 일방적 우위를 점하며, 문화 발전의 요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 진화론에 대해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반면에, 슬라브 민족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kultur- und geschichtslose Slaven) 집단으로 치부되었다. 19세기 초에 출간된 책에서 라이테마이어(Johann Friedrich Reitemeier)<sup>15)</sup>는 “동양적 취향(orientalischen Charakter)”의 미개한 슬라브인들은 중세 ‘독일 민족(deutsche Nation)’의 동유럽 이주로 인해서 “쫓겨나면서(vertrieben)” 이 지역은 “게르만화 되었고(germanisiert)”, 그로 인해서 “문화와 쾌적한 생활(Kultur und die Annehmlichkeiten des Luxus)”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독일인들의 이러한 “혁신적인 공헌활동(Revolution von der wohlthätigsten Art)”의 결과 문명의 황무지에서 문명의 진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라이테마이어는 독일과 슬라브의 패권 싸움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했고, 프로이센의 동방 정복으로 이 미완의 역사적 과업은 완수될 것으로 확신했다. 제3차 폴란드 분할(1795)에 따라 폴란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1791년의 5월 헌법에 자극된 폴란드 민족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프로이센에 대한 나폴레옹의 승리(1806)와 바르샤바 공국의 존속(1806-1815)은 폴란드의 민족주의 감정을 한층 고취시켰고, “폴란드 최고의 민족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츠(Adam Mickiewicz)는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영웅서사시를 서술하였다. 프로이센인들이 개척했다고 주장하는 포메른과 슐레지엔은 폴란드인들에게 ‘조국의 요람을 형성하는 지역(Polskie ziemie macierzyste)’으로 인식

---

15) Johann Friedrich Reitemeier, *Geschichte der Preußischen Staaten vor und nach ihrer Vereinigung in eine Monarchie*, Bd. 1-2, 1801-1805. 헝가리 지역의 식민화와 문화전파에 대해서는 August Ludwig von Schlözer, *Kritische Sammlung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in Siebenbürgen*, 1795.

되었다.<sup>16)</sup>

라이테마이어의 민족주의 사관에 경도된 일방적인 문화 전파론은 1863년 바텐바흐(Wilhelm Wattenbach)의 기고문에서 더욱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sup>17)</sup> 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조차도 정당화되었다.<sup>18)</sup>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 학계와 정치적 담론 구조에 정착된 문화전파론<sup>19)</sup>은 바이마르 시대에 와서 중세 독일 왕들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야만에 맞서는 “문명 수호자”, 독일의 “웅대한 기획”으로 칭송되었다. 슬레지엔을 “독일 정신의 최전방(Grenzmark des Deutschtums)”로 규정한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아우빈(H. Aubin)과 같은 학자도 국경지역의 배타적 전유를 위한 전투에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문화부재의 공간인 슬라브 지역의 개척을 독일 민족의 위업으로 해석하였다.<sup>20)</sup> 독일인이 슬라브인들보다 우월하다는 배타적 민족주의 사상에 근거한 문화전파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변모하였다.<sup>21)</sup>

---

16) Wolfgang Wippermann, “Die Ostsiedlung in der deutschen Historiographie und Publizistik. Problem, Methoden und Grundlinien der Entwicklung bis zum Ersten Weltkrieg”, *Germania Slavica I*, 1980, pp.41-70, 여기서서는 p.57;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27쪽.

17) Wilhelm Wattenbach, “Die Germanisierung der östlichen Grenzmarken des Deutschen Reiches”, *Historische Zeitschrift* 9, 1863, pp.386-417.

18) Heinrich von Treischke, “Das Deutsche Ordensland Preußen”, *Preußische Jahrbücher* 10, 1863, pp.95-151.

19) Gustav Höfken, *Deutsche Auswanderung und Kolonisation mit Hinblick auf Ungarn*, 1850, p.13: “고귀한 문화의 전파자(Träger einer schon gewonnenen edleren Kultur)”.

20)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19-322쪽.

21) Wippermann, “Ostsiedlung”, p.59.

### 3. 슬라브 절멸론

에른스트(Heinrich Ernst)와 같은 19세기의 역사가들은 우월한 군사력을 구비한 독일인들이 “새로운 독일 국가 (ganz neue, rein deutsche Staaten)”를 건설하기 위해서 슬라브 원주민들을 말살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선행문화 말살론’을 제기한다.<sup>22)</sup> 국경 지역의 배타적 전유를 위한 문화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영토순결주의가 기획된 것이다. 영토 내의 모든 역사를 ‘독일화’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배제해야만 했다.

슬라브 절멸론(Ausrottungs- bzw. Vertreibungstheorie)은 19세기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 동부 지역에 대한 고토회복의 이론적 토대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었다. “오데르 강 서쪽의 슬라브인들은 십자군 시기에 사실상 멸종되었다”고 주장한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Leopold von Ranke)도 슬라브인 집단학살을 초래한 군사작전을 “성공적 역사”로 치켜세운바 있다. 슬라브인들이 “절멸된(so gut wie völlig ausgerottet)” 맥클렌부르크(Mecklenburg), 포메른(Pomm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슐레지엔(Schlesien) 지역으로 이주한 독일의 귀족, 시민, 농민은 이곳에서 새로운 종족(Stamm)을 형성하였다.<sup>23)</sup> 비록 독일의 슬라브 정복과 복속 이론은 이미 20세기 초에 부정된 이론이지만, 이후에도 슬라브 원주민들이 독일 이주민들에 끼친 영향력은 학계에서 최소화되었다.<sup>24)</sup> 그 결과, 슬라브 원주민과 이주민의 혼혈은 부정되고 이들의 지

---

22) Heinrich Ernst, *Die Colonisation Mecklenburgs im 12. und 13. Jahrhundert*, 1875, pp.23-60, 인용구는 p.24.

23) Leopold von Ranke, *Geschichten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 von 1494 bis 1535* 1권, 1824, p.27.

24) 슬라브 절멸론은 슐레징어(Walter Schlesinger)와 같은 20세기 후반 서독의 대표적인 역사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옹호되었다. 관련 내용은 Walter Schlesinger, “Die geschichtliche Stellung der 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bewegung”,

속적인 상호교류와 공존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족했다.

중세 독일 민족의 동방 진출을 국경선의 확장으로 이해하면서 주권의 날카로운 모서리인 국경은 이렇게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통해서 ‘발명’되었다. 근대국가의 욕망이 만들어 낸 표상인 국경은 역사부도의 색 구분 지도에서 이웃나라와 대비되는 색깔로 표기되는 국가의 최전방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단일한 색채로 칠해지면서 국경은 국가의 통일성을 보호하는 방어선으로 상징화된다. 순수 혈통과 국가적 단일성을 훼손하는 이질적 요소는 우월한 민족의 색깔로 덧칠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진화론은 국경연구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의 전통적인 국경연구는 ‘국경은 변할 줄 모르는 정적(靜的)인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 신념에 근거한다. 이는 국경연구의 선구자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이 그의 저서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1897)에서 ‘영토가 국력의 원천이며, 생명을 갖는 유기체인 국가는 생존을 위한 적절한 공간(Lebensraum)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적 국경관을 피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sup>25)</sup> 또한 고전적인 국경연구는 국경을 국가와 국가를 분리하는 지리적 경계선으로서 국가의 주권, 영토, 국민의 존립을 보존하는 방패막으로 이해한다. 국민국가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선(線) 개념의 국경은 외세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사적 방어기능, 국가의 관할영역을 획정하는 법적기능,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과 상품을 규제하는 통제기능, 이데올로기를 차단하는 단절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국경의 단절적, 배타적 기능을 강조했던 고전적 국경이

---

*Mitteldeutsche Beiträg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des Mittelalters*, 1961, p.454 참조

25) Friedrich Ratzel, *Politische Geographie*, 1897.

론은 전근대의 국경이 갖는 결합과 접촉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의 국경사 연구는 외경(外境)에 치우친 나머지 내경(內境)이 빚어내는 역동성과 혼종성에 무관심하고, ‘국경’을 넘는 탈국가적·노마드적 요소들을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 III. 접경연구

#### 1. Germania Slavica

오랫동안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중세 독일의 동유럽 이주’ 현상이 19세기에 ‘발견되고(entdeckt)’, 20세기에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조차도 십자군 원정과 달리 동유럽 이주에 대해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퍼만(W. Wippermann)의 지적과 같이 19세기에 독일과 폴란드 민족 갈등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주제는 역사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sup>26)</sup>

“동유럽의 게르만화(Germanisierung der östlichen Grenzmarken)”는 20세기 중후반에 진행된 연구에서 사료적 근거 부족이 지적되었고, 그나마 수집된 사료들도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독일과 슬라브의 국경지대에서 민족 감정의 각성”<sup>27)</sup>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집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역사가 과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무기’<sup>28)</sup>였음을 자각하고, 자국사 중심

---

26) Wippermann, “Die Ostsiedlung”, pp.49, 52, 55.

27) Erich Maschke, *Das Erwachen des Nationalbewußtseins im deutsch-slavischen Grenzraum*, 1933.

28) Edgar Wolfrum, *Geschichte als Waffe. Vom Kaiserreich bis zur Wiedervereinigung*, 2001; 이병련 외 역, 『무기가 된 역사. 독일사로 읽은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2007.

의 칸막이 속에 간혀있는 분절된 역사인식을 극복하여 역사를 신화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오네르-나이세 국경선의 승인을 거부했던 아테나우어(Konrad Adenauer) 정권이 끝나고 양국의 국경을 인정하는 바르샤바조약(1970)으로 폴란드와 독일(서독)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동서화해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독 학계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국사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자국사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였다.

1976년 베를린 자유 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에서 역사학자 프리트체(Wolfgang H. Fritze, 1916~1991) 교수를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단(Interdisziplinäre Arbeitsgruppe, IAG)이 구성되고 역사학, 고고학, 성, 도시, 마을, 강 등의 이름과 그 기원을 연구하는 명칭과학을 전공한 20여 명의 연구자들이 1991년까지 독일-폴란드 접경지대를 연구하였다.<sup>29)</sup> 이때 엘베와 잘레 강 동쪽의 중세에 개간된 지역, 즉 슬라브화된 게르만 지역이라는 Germania Slavica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sup>30)</sup>

프리트체는 국경을 둘러싼 역사전쟁의 발단이 된 원시게르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슬라브인들에 대한 독일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때가 되었으며 “슬라브주의에 대한 독일주의의 편협한 우월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제안하였다.<sup>31)</sup> 슬라브인들이 “우리들의 선조(unsere

---

29) 이 지역은 강제 추방 등으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장소로 민족적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용일,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19쪽.

30) Wolfgang H. Fritze, “Germania Slavica. Zielsetzung und Arbeitsprogramm einer interdisziplinären Arbeitsgruppe”, *Germania Slavica I*, 1980, pp.11-40. 프리트체의 연구단 활동은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연구단의 결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32-333쪽 참조.

31) Wolfgang H. Fritze, “Slawomanie oder Germanomanie? Bemerkungen zu W.

Vorfahren)”<sup>32)</sup>임을 과감하게 천명했던 그는 독일 역사에서 슬라브인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당시 동유럽에서 자행된 나치 독일의 만행을 체험했던 그는 자국사 서술에서 독일-슬라브의 역사적 관계를 재해석하고 학문적 재정립을 시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인 1995년부터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 소속의 <동유럽 역사와 문화 센터(Geisteswissenschaftliches Zentrum Geschichte und Kultur Ostmitteleuropas, GWZO)>에서 지속되었다.<sup>33)</sup> 이제 독일 동부국경지방은 독일문화와 슬라브 문화가 조우와 충돌, 잡거와 혼종, 융합과 공존하는 접경지역으로 초국가적 측면에서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간의 지속적인 연구로 인해서, 중세 전성기 서유럽의 “동유럽 이주(Ostsiedlung)”는 ‘식민지화(Kolonization)’를 통한 야만주의의 극복과정이라기 보다는, 독일과 슬라브 두 문화가 조우, 잡거, 혼인 등으로 경제·제도·문화의 영역에서 삼투현상이 발생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늦게 도래한 독일인에게 영향을 준 슬라브의 언어, 법, 관습, 정치제도, 경제조직(wirtschaftliche Formen)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정되었다. 이주민에 의한 일방적인 문화전파의 서사구조가 해체되고 문화융합 중심으로 재서술되면서, 국경은 이질적인 다양한 문화가 조우하고 타협하는 ‘혼종의 공간’이자 ‘얽힌 역사(histoire croisée, entangled history)’가 전개되는 곳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

Stellers neuer Lehre von der älteren Bevölkerungsgeschichte Ostdeutschlands”  
*Frühzeit zwischen Ostsee und Donau*, 1982, pp.31-46.

32) Fritze, “Slawomanie oder Germanomanie?”, p.45.

33) 동유럽 지역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 연구기관에는 현재 50여명의 연구원들이 있으며, 역사학·고고학·명칭과학·문학·예술사 전공자들이 근무 중이다. GWZO(<http://research.uni-leipzig.de/gwzo/>)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등의 지원을 받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서와 학술지 발간 외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는 *Germania Slavica* 연구 전문가인 뢰케(Christian Lübke)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물론 Germania Slavica 연구단은 조우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간과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중세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진행되었다.<sup>34)</sup>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갈등은 종교,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독일과 폴란드의 민족 감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sup>35)</sup> 또한 랑케의 주장과는 다르게, 슬라브 출신의 귀족들이 발트해 연안의 포메른, 메클렌부르크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었고, 슬라브 귀족들은 마자르 족에 대항했던 955년의 레히펠트(Lechfeld) 전투에서 ‘독일군대’와 공조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독일-슬라브 관계를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슬레징어(Walter Schlesinger)조차도 옹호했던 말살론, 즉 독일 측의 “조직적 말살과 제거(planmäßige Vernichtung/Beseitigung)”에 의해서 “근절(Entwurzelung)”과 “말살(Ausrottung)”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슬라브 상층부는 여전히 존속할 수 있었고 이후 독일 국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다.<sup>36)</sup> 중세에 조우와 충돌, 잡거와 혼종을 경험했던 Germania Slavica 접경지역 연구는 랑케식의 자문화중심적 텍스트 해석에 반기를 들고 초국가

---

34) 대표적으로 Felix Biermann, “Konfrontation zwischen Einheimischen und Zuwanderern bei der deutschen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Bereit zum Konflikt. Strategien und Medien der Konflikterzeugung und Konfliktbewältigung im europäischen Mittelalter*, 2008, pp.131-172. 일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전쟁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팽배해진 타자에 대한 적개심내지는 볼신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사우(Bosau)의 사제 헬몰트(Helmold)가 작성한 *Cronica Slavorum*(MG SS rer. Germ. 32) 2.98, pp.192-194 참조.

35) Winfried Schich, “Zum Ausschluss der Wenden aus den Zünften nord- und ostdeutscher Städte im späten Mittelalter”, *Mit Fremden leben. Eine Kultur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1995, pp.122 - 136.

36)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인리히 사자공과의 봉건적 결속을 통해서 가문의 연속성을 보장받고 이후 그 후손들이 메클렌부르크 대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프리비스라브(Pribislav) 가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Lübke,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p.182.

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 사료의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 자료의 발굴은 이러한 시각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10세기 비두킨드(Widukind von Corvey)의 기록<sup>37)</sup>, 즉 변경백 게로(Gero)가 군사적 저항을 하던 슬라브 우두머리(principes barbarorum) 30명을 학살한 사건은 후대 학계에서 슬라브 “인종청소(ethnische Entmischung)”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베테니키(Vethenici)로 불리던 슬라브인들이 엘베와 잘레 강 인근의 가장 중요한 거점인 마이센(Meißen) 지역에서 독일인들을 위해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독일의 군사조직에 흡수되었던 사실<sup>38)</sup>, 그리고 1015년 폴란드의 마이센 침략 당시에 이들이 가족과 함께 독일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는 티트마르(Thietmar von Merseburg)의 기록<sup>39)</sup>은 슬라브 귀족 절멸론을 부정한다.

레히펠트 전투에 ‘독일군’과 함께 참전했고 이후 ‘senior’라는 호칭을 하사 받았던 쿠카비쿠스(Cuchavicus) 역시 말살의 반증 사례이다.<sup>40)</sup> 황제

---

37) Widukind von Corvey, *Res Gestae Saxonicae*(MG SS rer. Germ. 60) II, 20.

38) 잘레 강 동부의 마이센 지역을 통치하던 슬라브의 지배권이 10세기 후반 이후 서서히 종식되었을지라도, 슬라브 귀족의 이름이 토지양도와 같은 독일측 사료에 간헐적이지만 계속해서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슬라브 귀족이 새로운 지배집단과 공조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는 Gertraud Eva Schrage, “Zur Siedlungspolitik der Ottonen. Untersuchungen zur Integration der Gebiete östlich der Saale im 10. Jahrhundert”, *Blätter für deutsche Landesgeschichte* 135, 1999, p.197.

39) Thietmar von Merseburg, *Chronicon*(MG SS rer. Germ. N.S. 9) VII, 23. 일로브(Ilow) 성에서 슬라브 군인들이 독일인들과 함께 군사적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Cronica Slavorum* 2.98, pp.192-94.

40) Christian Lübke, *Regesten zur Geschichte der Slaven an Elbe und Oder(vom Jahr 900 an) II*, 1985, Nr. 99. 엘베와 오테르 강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또 다른 슬라브 고위귀족들(Dobromir, Erwin, Erp)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했던 ‘senior’의 관직이 부여되었다는 사실(Thietmar, *Chronicon* I, 5; IV, 58; VI, 75)은 이 지역에 대한 작센 왕조의 지배권이 강화된 뒤에도 슬라브 귀족 집단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작센 왕가의 봉신으로 오늘날 체코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 지역을 통치했

오토 2세로부터 잘레 강 동부의 비덴도르프(Biedendorf) 지역을 친히 하사 받았던 슬라브의 장군 리우보(Liuvo)는 오토 왕가로부터 고위관직(pincerna)을 하사 받았다.<sup>41)</sup> 이러한 독일과 슬라브 상층부의 군사·정치적 협력 관계는 종교적 교류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다수의 슬라브인들이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상층부 귀족들은 세례를 기회로 서유럽 정치세력과의 정치적 연대와 경제적 교류를 원했다.<sup>42)</sup> 개종한 슬라브 통치자들은 Germania Slavica 지역에서 선교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특히 개간 초기에는 친독일적 성향의 슬라브 귀족 집단에 대한 교회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는 개간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던 집단이 바로 세속 귀족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가급적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여,

---

던 슬라브 귀족은 “*subregulus*”라는 칭호를 얻었다 (Lübke, *Regesten zur Geschichte der Slaven II*, Nr. 48).

41) DO II, Nr. 91: qualiter nos ob interventum fidelissimi nepotis nostri Ottonis ducis cuidam pincernae nostro Liuuoni quandam proprietatis nostrae partem, id est villam quam vulgo vocant Biendorf in pago Seremode et in comitatu Thiemonis comitis sitam. 구체적으로 Christian Lübke, “Von der Slavina zur Germania Slavica: Akkulturation und Transformation”, *Vorträge und Forschungen* 78, 2014, pp.207-233, 여기서는 p.224 참조.

42) Christian Lübke, “Slaven und Deutsche um das Jahr 1000”, *Mediaevalia historica Bohemica* 3, 1993, pp.59-90, 여기서는 pp.75-80. 헬볼트의 기록에 의하면 1066년에 사망한 아보드리테족(Abodrite)의 지도자 곱샬크(Gottschalk)는 독일인 사제의 설교를 동료 슬라브인들을 위해서 슬라브어로 통역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Cronica Slavorum* 1.20, 42), 그의 아들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 독일 선교사들이 교회를 건립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다(Sébastien 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Germans and Slavs in Helmold of Bosau’s Chronicle” *Central European History* 47, 2014, pp.523-543, 여기서는 p.536). 12세기에 프리비스라브와 그의 신하들은 참석했던 미사가 끝나자 사제를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했다 (*Cronica Slavorum* 1.84, pp.159-160).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슬라브 통치자들의 주거지에 독일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p.537)은 개종과 경제적 번영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최대한의 수입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개종은 이러한 현실적 방편의 하나였다.<sup>43)</sup>

사망자와 함께 매장된 풍부한 무덤 부장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도 독일 지배 하에서도 슬라브 상층부가 존속했음을 대변한다. 브란덴부르크성에 거주하던 슬라브 귀족 가문은 오토 왕가가 이 지역을 차지했던 10세기에도 계속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sup>44)</sup>, 11, 12세기에는 독일 왕실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던 슬라브 출신의 기사(milites, fideles)가 등장하면서 독일 귀족들과 함께 공동통치를 하였다.<sup>45)</sup> 슬라브의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지배집단과 쉽게 공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이 “다종족적(cosmopolitan)” 공간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sup>46)</sup> 생존을 위한 종족간 이합집산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른 슬라브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슬라브인들은 독일 기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in concionem)’<sup>47)</sup> 군사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슬라브 귀족의 ‘지역에 대한 자율적 통치권(dominatio regionis)’을 인정하는 정치·군사적 봉건관계가 형성된다.

이들은 새로이 도래한 지배 집단과 슬라브 원주민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세 징수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부의 경우, 독일 귀족

---

43) 세 가지 유일신교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조우하던 접경지역인 이베리아 반도보다 슬라브인들이 거주했던 동유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적었던 이유는 다신론적인 슬라브의 전통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신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Lübke,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p.179.

44) Lübke, *Regesten zur Geschichte der Slaven II*, Nr. 66.

45) Gertraud Eva Schrage, “Zur Herkunft des Adels im Umfeld des Zisterzienserklosters Alzella. Ein Beitrag zur Assimilation der slawischen Oberschicht in der südlichen Germania Slavica in der Zeit um 1200”, *Zeitschrift für Ostrmitteleuropa-Forschung* 49/1, 2000, pp.1-18.

46) 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p.524.

47) *Cronica Slavorum* 1.38, pp.74-75.

가문과 결혼을 통해 자신의 특권적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sup>48)</sup> 이러한 Germania Slavica의 연구는 슬라브 지배계층의 연속성을 입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슬라브 역사의 연속성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 2. 접경의 일상

서 유럽의 여러 집단들이 Germania Slavica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이 지역에서는 게르만어와 슬라브어 사용이 지배적이었으며, 두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이 보편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슬라브 귀족 콧살크는 어린 시절을 볼모로 독일에서 보냈기 때문에 양측의 언어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슬라브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일 선교사들을 위해 활동하다가 순교한다.<sup>49)</sup> 콧살크와 다른 슬라브 귀족들의 사례는 이중 언어 구사자가 월경자(homines transmigracionis)로서 양측을 넘나드는 활동했음을 보여준다.<sup>50)</sup> 12세기부터 슬라브 지배층 내부에서는 독일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일반화되었으나<sup>51)</sup>, 일부 독일 귀족들도 슬라브어 사용에 불편이 없었다(Slavicae nichilominus linguae gnarus erat).<sup>52)</sup> 물론 언어적 동화과정도 수반되어서 많은 지역에서 슬라브인들

---

48) Lübke, “Slaven und Deutsche um das Jahr 1000”, p.72. 위에서 언급된 슬라브 귀족 에르빈은 자신의 딸(*filia Ervini senioris*)을 동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하인리히 1세와 정략결혼시켰고, “*nobilis vir*”로 불리던 슬라브 귀족 에르프(Erp)는 작센의 백작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는 훗날 마그테부르크의 대주교가 된다 (Thietmar, *Chronicon* I, 5; VI, 75). 결혼과 경작지 개간, 토지 거래 등으로 축적된 부는 에르프를 잘레 강 유역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로 만들었다 (Schrage, “Zur Siedlungspolitik der Ottonen”, pp.248-249).

49) 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p.531.

50) *Cronica Slavorum* 1.75, pp.143-44.

51) 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p.534.

52) *Cronica Slavorum* 1.49, 98. 9세기에 잘레 강 인근을 통치하던 변경백작의 슬라브어 실력은 접경지역에서 이중 언어 사용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Lübke,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p.178 각주 15 참조).

이 독일어를 수용하기도 했으며, 상부 슬라지엔과 동부 포메른으로 들어온 독일인들은 슬라브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일반 슬라브인들은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사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독일 귀족들이 하층 슬라브 전사들과 대화를 할 경우 통역사가 있어야만 했다.<sup>53)</sup>

접경 지역의 거주자들은 접경공간을 정합(整合)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고, 종교와 언어의 동화 역시 실용적 이유가 더 작용을 하였다.<sup>54)</sup> 때로는 강요된 원치 않는 공존이었지만, 편견과 배타적 감정은 “현실과의 타협(praktische Erwägungen)”<sup>55)</sup>으로 풀어야 했다.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해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했던 접경지역의 일상은 단절보다 교류가 보편적이고, 그곳은 분절된 지역이 아니라 조우와 소통의 공간이었다.

Germania Slavica의 또 다른 탁월한 연구성과는 독일-슬라브 접경지역의 여러 도시와 농촌을 조사해서 그 일상적 관계성을 복원하였다는 점이다. 정치, 종교, 경제 엘리트와 같은 상층부가 아닌 사회의 전반적 관계, 토지 개간 사업에 기여한 평범한 슬라브인의 업적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법적 지위가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연구방법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폭넓은 횡적 연구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직접적인 조우의 영역 (eine weitere Sphäre des alltäglichen und unmittelbaren Kontaktes)”<sup>56)</sup>이 드러났다. 비록 사료 부족의 문제가 제기될 있지만 기존 사료의 면밀한 재검토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토지 개간, 도시 건설, 접경 지역 건설에서 슬라브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

53) Rossignol,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pp.525, 540.

54) 접경 공간의 실용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Charles J. Halperin, “The Ideology of Silence: Prejudice and Pragmatism on the Medieval Religious Frontie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3, 1984, pp.442-466.

55) Lübke, “Slaven und Deutsche um das Jahr 1000”, p.75.

56) Lübke, “Slaven und Deutsche um das Jahr 1000”, p.75.

도출해 내었다. 종족적 차이가 아닌 지형적 조건이 토지 개간 참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연환경 앞에서 게르만과 슬라브의 종족적 차이는 생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없었기에 협력과 공조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속 귀족, 성직자, 도시민과 같이 특권 계층의 상층부의 경우 종족적 갈등이 유발되곤 했으나, 평범한 일상적 삶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예외적이었다는 것이다.<sup>57)</sup>

교조주의적 성직자들은 전통 종교를 고수하던 이교도와 그리스도교인의 공존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잡거와 혼종의 일상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세 접경공간이 경험한 공존의 다양한 모습을 문헌사료를 통해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성직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침묵과 묵인의 방법을 택하였다. 이들은 세속 군주의 관용정책을 탐탁해 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침묵했다.<sup>58)</sup> 그러나 접경지역의 평온한 혼종적 삶을 기록하지 않은 중세 연대기 작가와 마찬가지로,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역사주의 방법론에 친숙한 후대의 역사가들 역시 사료가 침묵하고 있는 공존과 융합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sup>59)</sup>

Germania Slavica 연구단은 명칭과학에 의존해서 독일과 슬라브식 지명이 혼합된 지명을 찾아내었고, 그로 인해서 토지개간과 도시건설이 유입된 독일인들만이 아니라 슬라브 노동력(familiae Sclavianici)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60)</sup> 이러한 협업은 그 동안 독일 학계

---

57) Benedykt Zientara, “Nationality Conflicts in the German-Slavic Borderland in the 13th-14th Centuries and Their Social Scope” *Acta Poloniae Historica* 22, 1970, pp.224-225.

58) Halperin, “The Ideology of Silence”, pp.442-466.

59)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36쪽.

60) 잡거와 혼종의 사례는 10세기 후반 멤레벤(Memleben) 수도원이 엘베강 중부에서 개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villulae)이 형성되고, 이중 6 곳의 마을은 독일어와 슬라브어가 섞인 혼종지명(Mischname)을 사용하고 있다(RI II,2 n. 782). 혼종지명 연구 방법으로 독일-슬라브인의 평화로운 잡거를 조사한 *Germania Slavica*의 연구성과

에서 외면되거나 자문화 중심으로 이해되었으나, 게르만인과 슬라브인의 공존과 협력은 도시건설에서도 드러난다. 11세기의 연대기 작가 아담(Adam von Bremen)은 대도시였던 볼린(Wolin)에는 슬라브인과 작센인들이 다른 종족들과 함께 거주했고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물자로 넘쳤다고 서술한다. 이는 독일인의 동유럽 이주 전부터 슬라브 지역에는 도시가 건설되었음을 말하고<sup>61)</sup>, 이는 기존의 “황무지에서(aus wilder Wurzel)”, “원시적인 슬라브 마을과 장터(von autochthonen slawischen Suburbien und Burgmärkten)”<sup>62)</sup>, “황무지 위에 설립된 도시(Stadt aus wilder Wurzel)”를 강조했던 슬라브 낙후론과 식민화론(Kolonisationstheorie)을 부정하는 진화론(Evolutionstheorie)을 제시한다. 슬라브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없었다면 독일인들의 성공적인 도시생활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sup>63)</sup> 독일인들의 도래로 접경지역에서 정복과 피정복의 대립항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의존이 심화되었고, 여기서 종족(Ethikum)은 부수적인 요인으로 양측 주민들의 간헐적인 대립상황은 촉발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갈등을

---

에 대해서는 Helmut Walther, “Die Ausbreitung der slawischen Besiedlung westlich von Elbe/Saale und Böhmerwald”, *Die Slaven in Deutschland und Kultur der slawischen Stämme westlich von Oder und Neiße vom 6. bis 12. Jahrhundert*, 1985, pp.25-32.

61) Jan M. Piskorski, “Stadtentstehung im westslawischen Raum: Zur Kolonisations- und Evolutionstheorie am Beispiel der Städte Pommerns”, *Zeitschrift für Ostmitteleuropa-Forschung* 44/1, 1995, pp.317-357.

62) Herbert Ludat, “Die Bezeichnung für “Stadt” im Slawischen”, *Deutsch-slawische Frühzeit und modernes polnisches Geschichtsbewußtsein*, pp.82-96, 인용은 p.84.

63) Wolfgang H. Fritze, “Die Begegnung von deutschem und slawischem Ethikum im Bereich der hoch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siedlung”, *Siedlungsforschung. Archäologie - Geschichte - Geographie* 2, 1984, pp.187-219, 특히 p.217; Winfried Schich, “Stadtwerdung im Raum zwischen Elbe und Oder im Übergang von der slawischen zur deutschen Periode. Beobachtungen zum Verhältnis von Recht, Wirtschaft und Topographie am Beispiel von Städten in der Mark Brandenburg”, *Germania Slavica I*, 1980, pp.191-238.

찾기는 어려웠다.<sup>64)</sup>

## IV. 새로운 공간담론

### 1. 탈국가적 접경연구

정복과 피정복의 이원대립의 논리를 벗어난 초민족적 접경지역 연구의 결과, 국경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었다. Germania Slavica 지역을 둘러싼 기존의 국경연구가 국경 팽창의 필요성과 당위성, 획득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명분 찾기에 급급했다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국경이 갖는 상호교류성의 역사성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국경을 고정적이고 방어적인 근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경계로서 국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방위선이자 이익선이라는 국경개념, 팽창은 곧 생존권(Lebensraum) 확장이라는 고정관념은 비판되었다. Germania Slavica 연구단은 ‘전근대의 국경선은 그 경계 안팎의 내용물들이 언제든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상투현상이 일어나던 곳’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경의 가변적 역사성에 주목하고 국가중심적 고정된 국경개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기존의 국경연구의 논지에 따르면, 국경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으로 문명의 승리를 위해서 국경은 팽창해야만 하고 야만의 시대로 회기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확립된 국경선은 지켜져야만 했다. 즉 국경은 문명의 도

---

64) Benedykt Zientara, “Die deutschen Einwanderer in Polen vom 12. bis zum 14. Jahrhundert”, *Die deutsche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als Problem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1975, pp.346-347. 치엔타라는 동방 이주가 안정화되고 중세 후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에서 슬라브인들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었음을 인정하였다 (“Nationality Conflicts in the German-Slavic Borderland”, pp.214-216).

래를 기다리는 “치너지(Wildnisse)”로 이곳에 정착한 독일인들은 문명의 전파자라는 것이다. 슬라브 문화를 야만으로 폄훼하고 서유럽 그리스도교의 문명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서술구도는 국경선을 문명 대 야만의 전투적 공간(Kampfland)으로 만들었다.<sup>65)</sup>

베를린에서 시작된 Germania Slavica 연구는 이러한 민족과 국가 중심의 국경 개념을 재고하면서, 국경은 “문명과 야만의 도가니”라는 길항적 구도가 아닌 다양한 종족, 종교, 세력의 조우, 경쟁, 갈등으로 변화하는 접경지대라는 대안적 해석을 모색한다. 기존의 해석은 독일인들의 이주가 있기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슬라브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면서 이 지역의 이산과 이주로 인한 다종족적 혼종성의 과거를 부정했다. 이에 맞서서 Germania Slavica 연구단은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사고와 편견을 해체하고 국경연구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 시각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처럼 연구단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조우하고 충돌하면서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독일 동부 지역(Ostdeutschland)을 강조한다. 근대국가의 민족주의 신화가 만들어낸 허위성을 파헤치고 접경지대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복원함으로써, 뒤늦게 이 지역으로 들어온 독일인과 슬라브 원주민들 사이의 일상적 교류가 드러났다. 접경 지역에서 신참자는 인구학적, 정치적 이유로 다수 피지배자의 관습과 제도를 존속시켰으며, 수적 약세로 인해서 무리한 사회정치적 재편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들은 인종-종교적 중재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과도기를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수용(acculturation)이 이루어지고 문화수용에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화나 수렴(convergence)의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독일 동부 지역의 새로운 역사쓰기는 엘베 강과 오데르 강 사이의 지역을 다양한

---

65)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322쪽.

종족과 문화가 가로지르는 접경공간으로 바라봄으로써 국경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전근대의 경계란 오늘날 같은 ‘선’으로 이루어진 국경이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접촉하던 혼종적 공간으로, 가변적인 중세의 접경공간을 근대의 부동적인 국경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도 자체가 비역사적이다. 그곳에 거주했던 독일인들과 슬라브인들은 이중적 정체성에서 혼돈을 느끼지 않았고 독일인 혹은 폴란드인이 아니라 슬레지엔 사람, 폼메른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 2. 종족 형성론

물론 *Germania Slavica* 연구는 접경공간에서 공존과 화합만을 강조하지 않고, 국경의 팽창으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종족적 갈등과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질적인 문명 간의 접촉 과정에서 종족 이산과 문화 이동, 갈등과 충돌, 낯선 것에 대한 소원함 뿐 아니라 이방인(*advenas*)에 대한 편견과 증오라는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다.<sup>66)</sup> 사료 부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중세 사료가 집중적으로 양산한 성직자들이 이 교도와의 공존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리학, 고고학, 지명학, 주거형태 연구는 이러한 사료의 공백을 채워준다. 발굴 유물들은 근대 민족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흥미롭지만 당혹스러운 사실들을 드러낸다. 여타의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Germania Slavica*에서도 일방적인 침략과 약탈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본래 다양한 슬라브 종족들이 거주하던 땅으로 이주한 독일 출신의 ‘손님들’은 현지인들과 협력해 도시를 건설하고, 점차 잡거(雜居)와 혼종의 독일-슬라브 접경(*deutsch-slawische Kontaktzone*)을 형성하였다. 요컨

---

66) *Cronica Slavorum* 1.63, p.120.

대 국경선은 충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장소에 가까웠다.

여러 세력이 조우하고 충돌했던 접경은 권력과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정치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였다. 당시의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하면 Germania Slavica의 접경공간에서 형성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원주민과 신참자 모두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광범위한 조우와 공존이 점차 일상이 되자 이곳의 주민들은 현실과의 타협에 익숙해졌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복잡다단했기 때문에 접경공간은 모순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곳은 이념적 증오가 판을 치는 공간인 동시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실험하는 공간이었다. 배제와 관용, 전쟁과 상호의존, 편견과 실용주의가 혼재한 장소이자, 양자택일의 논리 대신 양자병합의 논리가 제시되는 뒤엉킨 역사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아슬아슬하면서도 기묘한 중세적 공존은 단종론, 균질론과 통합론 등으로 규정되는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가 대두될 때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독일인과 슬라브인의 결합은 메클렌부르크, 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오버작센, 쉐레지엔 등에서 ‘새로운 종족(Neustämme)’이 등장했다는 ‘종족형성론’이 제기되었다.<sup>67)</sup> 새로운 종족(gens)이 탄생하고 독자적인 지역문화가 형성된 독일 동부 지역은 19세기 독일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한 장소이기도 하다. 비스마르크에서 제3제국으로 이어지는 독일 근현대사의 중심이 “슬라브-게르만 혼혈성(Blutmischung)”<sup>68)</sup>이 뿌리내린 접경공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보면 역사

---

67) Hans-Werner Goetz, “Die deutschen Stämme als Forschungsproblem”, *Zur Geschichte der Gleichung germanisch-deutsch*, 2004, pp.229-253.

68) 이미 힌체(Otto Hintze)는 1915년의 저서(*Die Hohenzollern und ihr Werk*, p.34)에서 프로이센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된 슬라브-게르만 Blutmischung(혼혈성)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politisch bedeutende Folgen)”를 지녔고 이는 “프로이센 인종(preußische Rasse)”을 형성하였고 국가 건설과 군사-정치적 규율 확립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에 영원한 중심과 주변은 없는 법이다. Germania Slavica 연구는 국가가 급작스럽게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지역적 관계성을 차곡차곡 정교하게 짜집기한 결과물임을 드러낸다.

“나라의 백성은 바이에른인, 슬라브인 구분 없이 상행위를 하는데 (Bawari vel Sclavi istius patriae, ibi ementes vel vendentes)”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10세기 초반의 기록<sup>69)</sup>은 이미 이 시기에 종족간의 신분차별 없는 잡거와 혼효 현상이 일상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중세 초기의 성직자들조차도 독일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슬라브인들을 다른 종족들과 동등하게 바라보았고, 이들 사이의 이주, 결혼에 의한 “혼종과 융합 (Verschmelzung und Symbiose)”을 묵인하였다.<sup>70)</sup> 독일 동부국경에 대한 새로운 공간담론은 중세 독일의 종족 정체성과 국가 형성과정에 기여한 슬라브 종족의 역할에 대해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V. 결론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의 전통적인 국경연구에 의하면, 국경은 보호, 단절, 통제, 차단 기능을 갖는 배타적 선의 개념이었다. 독일 동부 국경은 게르만의 고유 영토이자 중세 이후로 선진 문화가 전파된 문명화된 영토의 보루로 이해되었다. 국경선의 상실은 야만에 대한 문명의 패배였기에, 국경은 반듯이 수호되어야만 하는 신성한 경계선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새로운 국경연구는 전근대의 국경개념은 명확한

---

69) MG Capitularia II, Nr. 253, c. 6. 10세기 잡거와 혼효의 다른 사례는 DO II, Nr. 64a: in aliis villis et villarum partribus, quas Scalvanicae familiae inhabitant; DO II, Nr. 89: servus Nezan cum ceteris utriusque sexus mancipiis.

70) Goetz, “Die deutschen Stämme als Forschungsproblem”, p.245.

하나의 선(線)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지역 곧 공간이었음에 주목한다. 중세의 독일과 슬라브 문화가 만났던 접경지역인 Germania Slavica는 문명과 야만이 접하는 단층선이 아닌 다양한 사고와 경험이 조우하는 혼종적인 완충지대로, 이는 기존 중심-주변의 역사구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접경적 시각은 중심에서 구축된 지배질서가 주변에 미치는 양상을 보여주고, 역으로 중심이 주변의 공간적 재구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곧 주변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받은 중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주변과 중심의 관계는 길항적이기도 하지만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

Germania Slavica에서는 후대의 학자들이 상상했던 ‘민족’적 대립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중세 독일-폴란드 관계사에 19세기 이후의 민족 간 갈등관계를 투영시키면 안 된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의 역사가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세까지 확대하는 시대착오를 범했고 이는 결국 무리한 역사해석을 초래했다. 1795년 이후 폴란드의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항해 독일-프로이센은 문화전파론을 내세웠지만, 이주와 이산, 결혼과 교류를 통해 한 곳에 모인 이질적 문화들이 상호 교류하고 뒤섞인 까닭에 순수한 피와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반적으로 Germania Slavica 연구는 새로운 혼종 문화의 ‘조화로움’ 탄생을 강조한 나머지,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이면서 나타나는 과정상의 갈등과 배제의 논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연구의 대상과 방향이 1970년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맞물리면서, 특히 라이프치히에서 뒝케가 이끌었던 연구단은 1990년대 후반의 유럽통합 운동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동유럽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갖는 편견과 정치성을 해체하려는 노력은 다시금 현실정치에 부합하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국경(Grenze)에서 접경(Kontaktzone)으로

**주제어** : 접경, 조우, 충돌, 국경, 얽힌 역사

(논문투고: 2018.06.04. / 논문심사완료: 2018.06.13. / 논문게재확정: 2018.06.15.)

## 참고문헌

- Helmold, Bosau, Cronica Slavorum (MG SS rer. Germ. 32), 1937.
- Lübke, Christian, Regesten zur Geschichte der Slaven an Elbe und Oder  
(vom Jahr 900 an) II, 1985.
- MG. Capitularia regum Francorum II, Nr. 253, 1897.
- MG. DO II, Nr. 64a, Nr. 89, Nr. 91, Nr. 177, 1893.
- Thietmar, Merseburg, Chronicon (MG SS rer. Germ. N.S. 9), 1935.
- Widukind, Corvey, Res Gestae Saxonicae (MG SS rer. Germ. 60), 1839.
- 김용덕, 『이야기 폴란드사』, HUEBooks, 2013.
- 이용일,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10-39쪽.
- 정병권, 『폴란드사』, 대한교과서, 1997.
-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 접경지역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2007, 317-348쪽.
-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고방, 2011, 313-350쪽.
- 차용구, 「탄넨베르크/그룬발트 전투(1410) - 기억과 망각의 이중주」, 『사총』 92, 역사연구소, 2017, 275-311쪽.
- 한운석·김용덕·차용구·김승렬,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서.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Berg, Dieter, Deutschland und seine Nachbarn 1200-1500, 1997.
- Biermann, Felix, “Konfrontation zwischen Einheimischen und

Zuwanderern bei der deutschen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Bereit zum Konflikt. Strategien und Medien der  
Konflikterzeugung und Konfliktbewältigung im europäischen  
Mittelalter, 2008, pp.131-172.

Davies, Norman,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Vol.2: 1795  
to the Present*, 2005.

Ehl, Heinrich, *Norddeutsche Feldsteinkirchen*, 1926.

Ernst, Heinrich, *Die Colonisation Mecklenburgs im 12. und 13.  
Jahrhundert*, 1875.

Fritze, Wolfgang H., “Germania Slavica. Zielsetzung und  
Arbeitsprogramm einer interdisziplinären Arbeitsgruppe”,  
*Germania Slavica I*, 1980, pp.11-40.

Fritze, Wolfgang H., “Slawomanie oder Germanomanie? Bemerkungen  
zu W. Stellers neuer Lehre von der älteren  
Bevölkerungsgeschichte Ostdeutschlands” *Frühzeit zwischen  
Ostsee und Donau*, 1982, pp.31-46.

Fritze, Wolfgang H., “Die Begegnung von deutschem und slawischem  
Ethnikum im Bereich der hoch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siedlung”, *Siedlungsforschung. Archäologie - Geschichte -  
Geographie 2*, 1984, pp.187-219.

Goetz, Hans-Werner, “Die deutschen Stämme als Forschungsproblem”,  
*Zur Geschichte der Gleichung germanisch-deutsch*, 2004,  
pp.229-253.

Halperin, Charles J., “The Ideology of Silence: Prejudice and  
Pragmatism on the Medieval Religious Frontie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3, 1984, pp.442-466.

- Hampe, Karl, Der Zug nach dem Osten. Die kolonisorische Großtat des deutschen Volkes im Mittelalter, 1921.
- Herbers, Klaus (ed.), Grensräume und Grenzüberschreitungen im Vergleich. Der Osten und der Westen des mittelalterlichen Lateineuropa, 2007.
- Hintze, Otto, Die Hohenzollern und ihr Werk, 1915.
- Höfken, Gustav, Deutsche Auswanderung und Kolonisation mit Hinblick auf Ungarn, 1850.
- Ludat, Herbert, “Die Bezeichnung für “Stadt” im Slawischen”, Deutsch-slawische Frühzeit und modernes polnisches Geschichtsbewußtsein, pp.82-96,
- Lübke, Christian, “Slaven und Deutsche um das Jahr 1000”, *Mediaevalia historica Bohemica* 3, 1993, pp.59-90.
- Lübke, Christian, “Germania Slavica und Polonia Ruthenica: Religiöse Divergenz in ethno-kulturellen Grenz- und Kontaktzonen des mittelalterlichen Osteuropa(8.-16. Jahrhundert)”, *Grensräume und Grenzüberschreitungen im Vergleich. Der Osten und der Westen des mittelalterlichen Lateineuropa*, 2007, pp.175-190.
- Lübke, Christian, “Ostkolonisation, Ostsiedlung, Landesausbau im Mittelalter. Der ethnische und strukturelle Wandel östlich von Saale und Elbe im Blick der Neuzeit”, *Ostsiedlung und Landesausbau in Sachsen. Die Kührener Urkunde von 1154 und ihr historisches Umfeld*, 2008, pp.467-484.
- Lukowski, Jerzy, *The Partitions of Poland, 1772, 1793, 1795*, 1999.
- Maschke, Erich, Das Erwachen des Nationalbewußtseins im deutsch-slawischen Grenzraum, 1933.

- Merisalo, Outi (ed.), *Frontiers in the Middle Ages*, 2006.
- Piskorski, Jan M., “Stadtentstehung im westslawischen Raum: Zur Kolonisations- und Evolutionstheorie am Beispiel der Städte Pommerns”, *Zeitschrift für Ostmitteleuropa-Forschung* 44/1, 1995, pp.317-357.
- Ranke, Leopold von, *Geschichten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 von 1494 bis 1535* 1권, 1824.
- Reitermeier, Johann Friedrich, *Geschichte der Preußischen Staaten vor und nach ihrer Vereinigung in eine Monarchie*, Bd. 1-2, 1801-1805.
- Rossignol, Sébastian, “Bilingualism in Medieval Europe: Germans and Slavs in Helmold of Bosau’s Chronicle” *Central European History* 47, 2014, pp.523-543.
- Schich, Winfried, “Zur Rolle des Handels in der Wirtschaft der Zisterzienserklöster im nordöstlichen Mitteleuropa in der zweiten Hälfte des 12. und der ersten Hälfte des 13. Jahrhunderts”, *Zisterzienser-Studien* 4, 1979, pp.133-168.
- Schich, Winfried, “Stadtwerdung im Raum zwischen Elbe und Oder im Übergang von der slawischen zur deutschen Periode. Beobachtungen zum Verhältnis von Recht, Wirtschaft und Topographie am Beispiel von Städten in der Mark Brandenburg”, *Germania Slavica* I, 1980, pp.191-238.
- Schich, Winfried, “Zum Ausschluss der Wenden aus den Zünften nord- und ostdeutscher Städte im späten Mittelalter”, *Mit Fremden leben. Eine Kultur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1995, pp.122 - 136.

Schlesinger, Walter, “Die geschichtliche Stellung der 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bewegung”, *Historische Zeitschrift* 183, 1957, pp.517-542.

Schlesinger, Walter, “Die geschichtliche Stellung der mittelalterlichen deutschen Ostbewegung”, *Mitteldeutsche Beiträg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des Mittelalters*, 1961.

Schlesinger, Walter, “Zur Problematik der Erforschung der deutschen Ostsiedlung”, *Die deutsche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als Problem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1975, pp.11-30.

Schlözer, August Ludwig von, *Kritische Sammlung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in Siebenbürgen*, 1795.

Schrage, Gertraud Eva, “Zur Siedlungspolitik der Ottonen. Untersuchungen zur Integration der Gebiete östlich der Saale im 10. Jahrhundert”, *Blätter für deutsche Landesgeschichte* 135, 1999, pp.189-268.

Schrage, Gertraud Eva, “Zur Herkunft des Adels im Umfeld des Zisterzienserklosters Altzella. Ein Beitrag zur Assimilation der slawischen Oberschicht in der südlichen Germania Slavica in der Zeit um 1200”, *Zeitschrift für Ostmitteleuropa-Forschung* 49/1, 2000, pp.1-18.

Treischke, Heinrich von, “Das Deutsche Ordensland Preußen”, *Preußische Jahrbücher* 10, 1863, pp.95-151.

Walther, Helmut, “Die Ausbreitung der Besiedlung westlich von Elbe/Saale und Böhmerwald”, *Die Slawen in Deutschland und Kultur der slawischen Stämme westlich von Oder und Neiße vom 6. bis 12. Jahrhundert. Ein Handbuch*, 1985, pp.25-32.

Wattenbach, Wilhelm, “Die Germanisierung der östlichen Grenzmarken des Deutschen Reiches”, *Historische Zeitschrift* 9, 1863, pp.386-417.

Wippermann, Wolfgang, “Die Ostsiedlung in der deutschen Historiographie und Publizistik. Problem, Methoden und Grundlinien der Entwicklung bis zum Ersten Weltkrieg”, *Germania Slavica* I, 1980, pp.41-70.

Wolfrum, Edgar, *Geschichte als Waffe. Vom Kaiserreich bis zur Wiedervereinigung*, 2001; 이병련 외 역, 『무기가 된 역사. 독일사로 읽은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2007.

Zientara, Benedykt, “Nationality Conflicts in the German-Slavic Borderland in the 13th-14th Centuries and Their Social Scope” *Acta Poloniae Historica* 22, 1970, pp.207-225.

Zientara, Benedykt, “Die deutschen Einwanderer in Polen vom 12. bis zum 14. Jahrhundert”, *Die deutsche Ostsiedlung des Mittelalters als Problem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1975, pp.333-348.

From “Frontier” to “Contact Zones” :  
Eastern Border Studies in the German Historiography  
of the Twentieth Century

Cha, Yong-ku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wentieth century Germany's eastern border studi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border studies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borders were exclusive lines with the function of protection, disconnection, control, and interdiction. The eastern border of Germany was understood to be the stronghold of a civilized territory where Germanic inheritance and advanced culture had spread since the High Middle Ages. The loss of the border would have been understood as the defeat of civilization by barbarism, and it was a sacred boundary that must be defended.

New borderlands research in the 1970s revealed that the notion of the border in the premodern era was not as a definite line. *Germania Slavica*, the contact zones between medieval Germany and the Slavic culture, was not a fault line but hybrid zones of cultural encounters and inter-ethnic relations. Some Slavs moved into German-speaking areas where they were employed in, and integrated into, German domains: there were significant processes of entanglement and accommodation, and also of powerful contest.

In *Germania Slavica*, there was no ethnic hatred that scholars later imagined, and so the conflicts between medieval German- and Slavonic-speaking people should not be projected as the nationalist

images. Social interactions cut across ethnic lines. Overall, Germania Slavica research emphasizes the harmonious birth of a new hybrid culture, and it can be highlighted that the process of conflict and exclusion is relatively neglected in the field.

Moreover, the subject and direction of Germania Slavica research has combined with West Germany's Neue Ostpolitik of the 1970s. In particular, the research group led by Christian Lüdtké in Leipzig was related to the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s of the late 1990s and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in Eastern Europe. These efforts to dismantle the prejudice and politics of nationally-driven historiography also face the dilemma of corresponding to the realpolitik.

**Key Words** : Contact Zones, Encounter, Clash, Frontier, Entangled History